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전복으로 명성을 얻기 전 완도를 전국적으로 알린 것은 이 해수욕장이었다. 지난 2005년 신지대교가 놓이기 전에는 완도군청이 있는 완도읍에서 철부선을 타야만 전국 최고의 모래를 만나볼 수 있었다.

‘명사십리’ 명성 완도, 전복·다시마로 제2 전성시대

‘블루오션’
다도해 <28>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완도편 - 완도·신지도

섬으로만 이루어진 완도군은 대모도를 중심으로 완도대교로 해남과 이어지는 완도읍과 군외면, 고금·약산·신지도, 금당·평일·생일도, 청산도, 노화·보길·소안도가 하나의 원을 그리듯 형성돼 있다. 이들 군도(群島) 주변에는 소규모 유인도와 무인도들이 둘러싸며 높은 파도를 막고, 풍부한 유기물을 공급하며 전해의 양식장을 만들었다.

완도군이라는 행정구역은 구한말인 1896년 8월 4일 지방제도 개편으로 탄생했다. 완도군이 설치된 지 올해로 119년이 된 것이다. 당시 조선은 강원, 해남, 장흥 등에 흩어져 있던 유인도 75개와 무인도 135개를 하나로 묶었다. 섬 사람들이 억세고, 그로 인해 자주 물사람들과 갈등을 빚자 이 같이 조치했다는 이야기가 완도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진다.

하지만 완도읍과 군외면이 있는 완도는 1962년 완도군 완공으로 해남군 북평면과 이어지면서 연결됐다. 이후 1985년 신완도교, 2012년 신완도대교가 각각 그 자리를 대신했다. 53년이라는 시간동안 물과 ‘하나’가 됐으니 이제는 물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앞서의 여러 군도 내를 하나로 엮는 연도교 사업을 꾸준히 진행중이다. 약산대교(1999년), 신지대교(2005년), 보길대교(2008년)는 이미 놓였고, 신지도와 고금도를 잇는 장보고대교(2017년), 노화도와 소안도를 잇는 다리(2018년) 등이 개통 예정이다.

연도 사업이 계속되면서 각기 모여있는 섬 집단의 특성이 더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신지·고금·약산은 한우나 염소 등 물과 유사한 특산물, 금당·평일·생일도는 미역·돛·다시마 등 해조류와 기암괴석, 노화·보길·소안은 다시마·전복과 역사문화자원, 청산도는 ‘느림’으로 대표되는 옛정취 등이 강점이다.

완도는 현재 모두 265개의 섬으로 구성되며 4940㎢의 해역과 839km의 해안선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23만7000t의 수산물을 생산했으며, 이는 전남의 34.1%, 전국의 8.3%에 해당

전국 생산량의 70~80% 차지

불거리·먹거리 결합 부유함 얻었지만

해양오염·양극화·자연훼손 문제 부상

복지·의료·문화시설 등 구축도 시급

한다. 다시마와 돛은 전국의 78%와 75%, 전복은 무려 80%를 책임지고 있다.

해조류와 전복으로 완도는 ‘부유함’을 얻었지만, 최근에는 그 반대급부로 해양 오염, 주민 간 빈부격차의 심화, 자연경관의 훼손 등이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완도를 찾은 것은 지난 9월 7일, 한창 적조가 남해바다를 휘감고 있을 때였다. 여수와 고흥, 완도의 바다에 붉은 색 띠가 펼쳐지면서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 완도군청과 읍·면사무소, 주민들까지 나서 황토 살포에 여념이 없었다.

육상 양식장에서 첫 피해가 신고되는 등 적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완도군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공동으로 완도해역(완도읍~금당도~평일도~생일도~청산도)에 걸쳐 나뭇잎, 군데군데 적조 밀도가 최고 9200코클로디니움(cell/ml)에 달하고 있어 조류 방향에 따라 완도 해역 어디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이었다. 다만 적조가 장기간 머물지 않는다면 완도의 주력 품종인 해조류나 전복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신지도 육상양식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지도로 향했다.

육상양식장에서는 주로 광어나 우럭 등을 양식하는데, 바

닷가 인근에 시설을 설치해 해수를 퍼올리는 방식이다. 전복 폐사율이 높아지고 ‘상품화’ 주기도 비교적 짧아 큰 자본이 없는 어민들이 육상양식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지도 동고리의 피해 현장에 가니 이미 노란 플라스틱 박스에 죽은 광어가 가득차 있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직원이 일일이 마리수를 세고 나면 수거처에 실었다. 어민은 아무런 말 없이 죽은 생선을 연신 수조에서 꺼내며 한숨을 쉬고 있다. 출하를 앞두고 있어 상심이 클 것이라고 한 주민이 귀땀했다.

동고리에서 나와 신지의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았다. 1980·90년대 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곳은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곳이다.

완도에서 철부선을 타고 찾아야 했던 이 해수욕장은 지난 2005년 다리가 놓이면서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한 여름이 지났지만 바다내음과 향수를 기억하는 ‘늑장’ 피서객들이 모래사장 이곳저곳을 오가며 마지막 여름을 즐기고 있었다.

과거에 비해 해안선과 소나무 숲이 정비되는 등 ‘세련미’가 추가됐다. 초가를 ‘송어’가 뛰어오르는 해변을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하지만 신지대교를 지나면 바로 보이는 폐교는 여전히 신지도의 전성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섬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없어지거나 없어져야 할 시설과 복지, 문화, 고령자 돌봄(케어), 의료 등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 제때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원석기자chadol@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을 늦추려 완도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적조 방제에 나선 완도군 방제선.



8경으로 유명한 금당도의 초가바위. 바다에서 조망한 해변이 자랑거리다.



보길도 보옥리 공룡알 해변.



2013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청산도 구들장은.

프랑스가구 런칭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